



한강 소설 '소년이 온다'를 극화해 광주에서 선보였던 연극 '휴먼 푸가'의 한 장면. (공연창작집단 푸타 제공)

# 영화로 연극으로... 펼쳐졌던 한강 소설들

한국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 소설이 연일 화제인 가운데, 한 작가의 소설을 원작으로 만들어진 '2차 창작물'에도 관심이 쏠린다.

2020년 광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상연했던 '휴먼 푸가'가 대표적인 예다. 이 연극은 한강 소설 '소년이 온다'를 극화한 것으로 한국연극평론가협회에서 '올해의 연극 베스트3'에 선정되기도 했다.

'휴먼 푸가'는 여러 삶의 형태를 통해 반복하는 인간 고통에 착안, 멜로디를 반복하거나 교차·중복시키는 푸가(fuga) 형태를 접목했다. 원작과 같이 1980년 5월, 계엄군의 총칼에 맞서 싸운 시민들과 남겨진 이들의 고통을 초점화한다.

배우들은 "이미 소설로 완결성을 지닌 작품을 새롭게 극화하는 것은 사회적 고통을 기억하고 각인하는 예술적 방식"이라며 창작 의도를 밝혔다.

연극이 재차 주목받는 이유는 원작 '소년이 온다'의 서사 구조를 짙게 짠 무대 위에 옮겼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배우들은 소설 속 텍스트를 원전 그대로 낭독하며 '어린 새', '검은 숲', '일곱 개의 뿔', '꽃핀 쪽으로', '쇠와 피', '밤의 눈동자' 등 챕터를 연기한다.

원작의 중학교 3학년 소년 동호와 친구 정대 등도 고스란히 무대에 옮겨진다. 주인공의 단편적인 기억, 증언을 따라가는 구성이지만 한강 소설을 상호텍스트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밀가루, 테이프, 볼펜이나 천 등 다양한 오브제를 사용해 5·18 당시 고문의 아픔을 형상화한 점은 작품의 특징이다. 백여 개에 달하는 투명한 유리병을 통해서 는 영령들의 비극과 고통을 형상화했다.

"그것은 그의 잘못이 아니었다. 죄가 있다면 모두 나의 것이었다./ 삶이 얼마나 긴 것인지 몰랐던 죄, 몸이 시키는 대로 가지 않았던 죄, 분에 넘치는 정신을 껴뚫던 죄, 분에 넘치는 사랑을 껴뚫던 죄, 자신의 한계에 무지했던 죄(...)"('아기 부처' 100쪽)

아울러 1999년 제25회 한국소설문학상을 수상했던 '아기 부처'도 입소문을 탔다.

소설은 앞서 2011년 임우성 감독의 영화 '홍터'로 스크린에 올랐다. 개봉 당시 큰 흥행을 기록하지 못했으나 원작의 주제를 영화 언어로 충실히 구현했다는 평가도 있다.

원작의 '아기 부처' 속 주인공 '나'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부단히 애쓰는 인물로, 어린 시절 어머니의 매서운 손길을 감당하며 성장했다.

영화 '홍터' 또한 어릴 적 엄격한 환경 속에서 자라 감정이 메마른 선희(박소연 분)의 삶을 조명한다.

그녀는 지울 수 없는 상처로 인해 완벽주의에 집착하는 남자 상협(정희태)과 함께 동상이몽을 꿈꾸며 위태로운 결혼생활을 이어간다. 어느 날 상협의 외도 사실이 드러나자 비밀스러운 기억들이 슬며시 고개를 든다. '홍터'에 앞서 임 감독은 2010년 한강의 소설 '채식주의자'를 모티브로 동명 영화도 선보였다.

12일 주이탈리아 한국문화원에 따르면 이탈리아 극단 INDEX는 '채식주의자'를 동명 연극으로 제작, 오는 25일부터 내년 2월까지 프랑스 및 이탈리아 주요 도시에서 상연할 예정이다.

지역 극단들도 한강의 작품 무대화에 반색을 표했다. 광주시립극단을 비롯해 푸른연극마을, 극단 연우랑 등은 '원작자에게 연극화 제작 동의를 거쳐야 하기에 쉽지 않았으나, 언젠가 한강 작품을 극으로 상연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향후 '흰', '작별하지 않는다'와 같은 작품도 무대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연극계에 감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채식주의자'·'홍터' 영화로 온다

17일부터 CGV 단독 상영

한국인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의 소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를 스크린에서 다시 볼 수 있게 됐다.

CJ CGV는 14일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기념해 영화 '채식주의자', '홍터' 두 편을 오는 17일부터 단독 상영한다고 밝혔다.

광주에서는 CGV 광주터미널점이 '노벨, 문학이 온다'라는 기획으로 영화 '홍터'를 17일 오후 8시 30분 2D관 스크린에 올린다. 같은 날 오후 4시 50분, 밤 9시 20분 두 차례에 걸쳐 '채식주의자'도 관객들을 만난다.

18일 오전 9시 15분에도 상영할 예정. 상무점 또한 17일 오후 12시 45분, 오후 8시를 비롯해 18일 2회 등 상영을 할 예정이다.

'채식주의자'는 평범한 삶을 살아오던 여성이 어느 날 갑자기 육식을 거부하고 채식주의를 선언하며 펼쳐지는 이야기를 그린 한강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다. 2016년 한강에게 한국인 최초의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맨부커 인터내셔널'을 안긴 소설로 배우 채민서가 주인공 영해, 현성 배



'채식주의자'

우가 형부 민호 역을 맡았다.

아울러 '홍터'는 한강의 소설 '내 여자의 열매'에 수록된 '아기 부처'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영화다. 감정이 메마른 여자와 완벽주의에 집착하는 남자의 위태로운 결혼 생활을 초점화했으며 선희 역에 박소연, 상협 역에 정희태 배우가 연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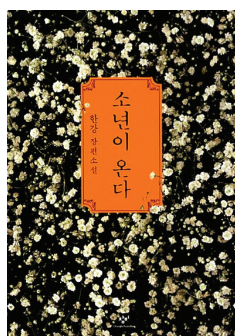
영화 배급을 맡은 해피송 송유진 대표는 "영화 '홍터'와 '채식주의자'는 개봉 당시 큰 흥행을 기록하지 못했으나 원작의 서사를 충실히 재현하면서 나름의 매력을 부각시킨 작품들이다"라며 "이번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통해 한국 문학은 물론 국내 영화에 대한 관심이 커졌으면 한다"고 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한강 작가의 소설 '아기 부처'를 영화화한 임우성 감독의 영화 '홍터'.

광주5·18항쟁 모티브 '소년이 온다'  
2020년 연극 '휴먼 푸가'로 무대에  
한국연극평론가협회 '연극 베스트3' 선정

1999년 한국소설문학상 수상 '아기부처'  
임우성 감독 영화 '홍터' 2011년 상영



## '한강 작가 특별 도서전'

31일까지 남구 문화정보도서관



남구 문화정보도서관 '한강 작가 특별 도서전' 장면.

광주 출신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을 축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가운데 지역에서도 '한강 작가 특별 도서전'이 열려 눈길을 끈다.

광주 남구는 봉선동 문화정보도서관 오는 31일까지 한강 작가 도서를 전시한다. 지난 11일부터 봉선동 문화정보도서관 6층 종합자료실에서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는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축하하고 한국 문학의 궤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6층 특별 큐레이션 공간을 조성해 선보이는 전시는 도서관에 소장 중인 7권의 책을 볼 수 있다. 선보이는 도서는 '소년이 온다'를 비롯해 '채식주의자', '작별하지 않는다', '흰', '바람이 부는, 가라', '여수의 사랑' 등 모두 7권이다.

문화정보도서관에서는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이 전해지자 지난 11일부터 한강 작가 도서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당일 오전부터 모든 책 대출이 이뤄져 현재 예약 대기자가 있는 상황이다.

또한 남구에 소재하는 푸른길도서관을 비롯해 청소년도서관, 효천도서관 3곳이 소장하는 책도 모두 대출이 이뤄질 정도로 한강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아시아 여성 작가 최초, 한국 작가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뜨겁다"며 "소박한 전시이지만 전시를 통해 한강 작가의 문학적 열정을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임방울국악제 수상자들, 중국 무대 오른다 17~20일 곧문화예술중심

광복 79주년 및 한·중수교 32주년을 맞아 양국 간 문화진전을 위한 국악 공연이 펼쳐진다. 중국 내 우리 동포와 교민들의 향수를 달래고 중국 근명 시민들에게 예향 광주의 예술혼을 알리는 무대가 마련된다.

(사)임방울국악진흥회(이사장 김중재)는 '임방울국악제 수상자 중국 근명시 공연'을 오는 17~20일 곧문화예술중심에서 연다. 임방울국악제 수상자 지원·관리 차원에서 펼쳐지는 공연이며 분무대는 18일(오후 7시) 만날 수 있다.

첫 공연은 제21회 농악대상을 수상한 한국농악보존회 농악단의 '풍물판굿'이 장식한다. 이어 대통령상을 수상한 원진주 명창이 '심청가' 중 '심봉사 눈뜨는 대목'을, 기약산조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김승호·김정민·이정아·조가완 명인이 자신만의 선율을 들려준다.

문체부 장관상에 빛나는 정세아 외 6명은 무궁화꽃을 형상화하는 '부채춤', 판소리 '춘향가' 중 춘향과 이도령의 사랑을 단막극으로 형상화한 대목 등을 보여준다. 춘향 역에 마미숙, 이도령 역에 원진주가 출연하며 '입체창'을 선사할 예정.



임방울국악제 수상자들이 해외 공연을 펼치는 모습.

(임방울국악진흥회 제공)

14회 문체부장관상을 수상한 이정아의 '방아타령', '아리랑', 지난해 대통령상 수상자인 박자의 명창의 '홍보가' 중 '홍보가 부자되어 찻대 박 타는 대목'도 울려 퍼진다. 국가의 태평성대와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두미지, 박소희, 강재인 수상자의 '태평무'도 레퍼토리에 있다.

대미는 풍물판굿 장단과 어우러지는 박소희 외 6명 무용수의 '소고춤', 남도민요 '농부가', '풍년가'

가 장식한다. 대통령상 수상자 마미숙, 원진주, 박자의, 정은혜, 이정아 명창 등도 신명의 무대를 연출한다.

김중재 이사장은 "이번 공연은 중국 관객들에게 한국의 독창적인 전통음악과 예술을 선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임방울국악제 수상자의 후속관리를 통해 다양한 무대에서 활동하는 기회를 주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광주청소년 삶디자인센터 연극동아리 '페르소나' '청소년 방송콘텐츠경연대회' 문화체육부 장관상

광주청소년삶디자인센터(센터장 박형주) 연극 동아리 페르소나 팀(사진)이 최근 진행된 '제17회 청소년 방송콘텐츠 경연대회'에서 고등부 대상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광주시와 문체부, 광주관광공사 및 광주시청 자미디어센터가 주관한 이번 경연은 청소년이 기획한 창작 콘텐츠에 방송기술을 접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노래, 미술, 국악, 무용 등 방송 가능한 모든 콘텐츠를 대상으로 13~18세 청소년이 경합했다.

송원영교 등 지역 고등학생 6명으로 구성된 페르소나는 닐 사이먼 원작 '굿 닥터-치과의사'를 동명의 2인극으로 각색해 선보였다. 사제 분 미글라소프 역에 최기훈, 조수 큐리아틴 역에 김민정 학생이 출연했으며 방송조(연출)에 정윤희, 정수민, 최주원, 박은찬.

공연은 10년 만에 하는 치과진료를 모티브로 대리수술, 의료파업, 타인과의 갈등과 같은 사회 문제를 조망한다. 극 중 조수는 사제의 치과 수



술을 직접 집도하면서 치아 가운데 뚫린 구멍을 발견한 뒤 이를 뺏으려 시도하는 내용이다. 집계를 당기며 뽀니를 부러뜨리거나 자리에서 넘어지는 등 해학적인 장면은 웃음을 자아낸다. 이 과정에서 의사와 환자, 사제 등 다양한 직업군의 '계면'에 대해서도 폭넓게 사유한다.

페르소나 김민정(17·송원영교) 대표는 "배우 및 방송팀을 카메라에 극이 잘 담길 수 있는 방법과 어울리는 음악을 선정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고 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